

조 영 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미술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안명희

# 고등학교 미술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조 영 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안 명 희

# 인 준 서

안명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의원 \_\_\_\_\_인

심사의원 \_\_\_\_\_인

심사의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이 통과되기까지 학문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이신 조영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걱정해주시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기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정명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김영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논산 인터넷 고등학교 임영우 교장선생님과 영락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6월

안 명 희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을 위한 전인 교육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주위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현실에서 부모나 기성세대들이 가르쳐야 할 도덕성 또는 인성, 인격 형성 등의 교육까지도 학교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입시나 취업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감성이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 등 몇몇 과목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나마도 교육과정이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육은 입시나 취업위주의 교육에 밀려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흥미 그리고 정서적인 분야에서 어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술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미술 교육에 관한 만족도, 인성교육의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술시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 모두 창의성이라고 대답하였다.

둘째, 미술 시간이 힘들고 싫다고 느낀 학생들 가운데 인문계의 경우 준비물이 많고 귀찮아서(64명, 62.7%)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학교의 미술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학교의 교육여건(80명, 45.2%)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술을 전공으로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대답이 인문계에는 60명(33.7%) 실업계에는 70명(42.2%)으로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넷째, 평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있냐에 대한 질문에 가끔 그리고 싶더라는 대답이 인문계의 경우 75명(42.1%), 실업계의 경우 94명(53.1%)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인문계 106명 (59.6%), 실업계 102명(56.7%) 조사되었다.

다섯째, 미술 수업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문계 49명 (27.7%), 실업계 42명(23.5%)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미술시간에 대한 생각에는 인문계(63명, 35.4%)와 실업계(69명, 39.4%) 모두 좋아한다고 조사되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인문계에서는 재미있고 즐겁다(26명, 40.6%)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많았고, 실업계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24명, 35.8%)라는 응답이 많았다.

여섯째, 학생들의 비행·가출·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은 정서 순화와 정서 발달에 얼마만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는 ‘조금 역할을 한다’(48명, 27.0%)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실업계는 ‘보통이다’(57명, 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곱째, 미술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가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인문계 50명 (28.4%), 실업계48명(27. 3%)이 응답이 많이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종합해 보면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관한 만족도와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문항에서 큰 차이 없이 비슷하

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미술수업이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교 재량으로 1, 2학년 위주로 미술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술 수업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와 문화적 지위 그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술감상 수업을 추가하여 관심을 갖고 문화인으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

##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3. 연구의 제한점	5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배경	6
1. 미술교육의 정의	6
1) 미술교육이란	6
2) 미술교육의 역사	7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미술교육	10
1) 학교 교육과정의 정의	10
2) 미술교육의 형태	11
3)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13
4) 제 7차 미술교육의 중점	22
5) 제7차 미술 교육과정의 성격	23
6) 미술교육과 입시제도의 성격	23
3. 미술교육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	25
1) 고등학교 미술과 영역 및 내용	25
2) 청소년의 인성 발달	25
3) 미술교육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과의 관계	26
4. 선행연구	28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0
1. 연구방법	30
2. 연구절차	30

IV.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31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1
2. 미술 수업에 관한 특성	33
3. 심리·정서 영역에 관한 특성	40
4. 연구의 결과 요약	49
5.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미술수업 지도안 및 시간표	52
1) 미술수업 지도안	52
①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수업 지도안	52
② 실업계 고등학교 미술수업 지도안	53
2) 미술수업 시간표	54
① 인문계 고등학교 시간표	54
② 실업계 고등학교 시간표	55
V. 결론	57
참고문헌	60
영문초록	64
부    록	67

## 표 목 차

<표Ⅱ-1> 미술교육의 역사	9
<표Ⅱ-2> 미술교육의 형태	13
<표Ⅱ-3>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19
<표Ⅱ-4> 6·7차 교육과정 내용 비교	21
<표Ⅱ-5> 제 7차 미술교육의 중점	22
<표Ⅲ-1> 연구조사대상	30
<표Ⅳ-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2
<표Ⅳ-2> 미술 수업 시간의 수	33
<표Ⅳ-3> 미술 수업시간의 참여도	33
<표Ⅳ-4> 미술수업의 입시제도 영향	34
<표Ⅳ-5> 학교 미술교육의 큰 문제점	34
<표Ⅳ-6> 미술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35
<표Ⅳ-7> 학교 수업의 창의성	36
<표Ⅳ-8> 미술과목의 흥미도	36
<표Ⅳ-9>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	37
<표Ⅳ-10>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38
<표Ⅳ-11> 미술수업 시간이 힘들고 싫다고 느낄 때	38
<표Ⅳ-12>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미술교육의 역할	39
<표Ⅳ-13> 미술을 전공으로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	40
<표Ⅳ-14> 평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	40
<표Ⅳ-15>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	41
<표Ⅳ-16>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미술수업의 영향	42
<표Ⅳ-17>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와 미술의 역할	43
<표Ⅳ-18> 미술시간에 대한 생각	44

<표Ⅳ-19>	미술시간이 좋은 이유	44
<표Ⅳ-20>	미술시간이 싫은 이유	45
<표Ⅳ-21>	그림을 보거나 그릴 때 부모님의 반응	46
<표Ⅳ-22>	미술과 관련된 직업이 있는 가족	46
<표Ⅳ-23>	미술 행사 참여 계기	47
<표Ⅳ-24>	미술 행사의 참여의 동행자	48
<표Ⅳ-25>	미술 작품을 보고 난 후의 느낌	49

# I. 서론

## 1. 문제 제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가출, 폭력, 집단따돌림, 약물중독, 성 문제, 자살 그리고 카드문제 및 과소비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특히 청소년문제를 인성 또는 인격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교육이란 첫째,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른다. 둘째, 성숙(成熟)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心身)을 발육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教授的) 행동<sup>1)</sup>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품성과 사람의 심신을 발육시킨다는 것은 인격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 교육은 취업이나 입시에 치우쳐 학생들의 인성 또는 인격 향상,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체능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미술교육의 경우도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참된 의미가 퇴색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목표 지향적 교육으로 퇴색되어지고 있다.

미술교육이란 '정서와 창의력의 신장을 통한 조화의 길'로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미술의 교육(Education of Art)과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미술 교육은 미술 그

---

1) 「동아 참 국어사전」 (서울 : 두산동아, 1998)

자체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을 말한다. 표현능력을 육성하거나 미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미술작품의 제작이나 그 연구를 위한 대학의 전문 미술교육, 또는 20세기 이전의 도제 교육, 바우하우스 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미술을 통한 교육은 미술에 의한 교육으로 미술활동을 매개로 한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술·조형활동을 통한 창의력의 신장이나 감성의 육성 등, 미술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미술활동에서 촉발되어 얻어지는 전인적인 품성을 배양하는 것을 미술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학교의 교과로서의 미술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sup>2)</sup>

그러나 오늘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 교육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미술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입시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목적적 미술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인격 향상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예체능 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권리를 입시나 취업 위주의 학교 교육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문제가 반드시 입시나 취업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만 비롯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정문제와 사회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 특히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인격 향상이나 정서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예체능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

2) 김정희 외 6명.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 학지사, 2003) p.16.

- (1)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육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3)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 교육이 일반 사설학원과 같이 대학 입시나 취업위주의 목표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술, 음악, 체육 등 학생들의 정서 함양이나 체력, 인성개발 등을 위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나아가 국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이나 인성개발 등의 문제까지도 학교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본래의 취지인 전인적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입시제도라는 커다란 걸림돌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입시라는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이나 인성 개발 등을 등한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대개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학

생들의 정서 발달이나 인성 개발 등에 대한 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더 많은 시간을 정서발달이나 인성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 전쟁과 맞먹는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정서 발달이나 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 발달이나 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의 종류나 교육과정 등을 알아보고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학교 교육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의 차이점 또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이나 인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학교 미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필요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년별 미술 교육과정을 비교한다.

둘째, 입시 교육위주로 진행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취업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미술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의 차이점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학교 내에서의 참된 미술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을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3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4. 용어의 정의

실업계 고등학교 :

본 연구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란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업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등을 주로 말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술교육의 정의

#### 1) 미술교육이란

미술(美術)이란 시각(視覺)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 속에 미를 표현하는 예술, 회화, 건축, 조각 따위로 정의된다. 그리고 교육은 첫째,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른다. 둘째, 성숙(成熟)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心身)을 발육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敎授的) 행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sup>3)</sup> 따라서 미술과 교육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조화로운 인간’ 이라는 말로 집약된다. 미술이 인간의 자아표현 수단의 하나라면, 미술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인간 내면의 표현을 통한 자아개발, 자아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의 본질은 기능적 시각에는 교육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있으며, 목적론적 시각에서는 교육은 민주시민의 계발 또는 진리의 탐구 등과 같이 어떤 가치의 추구 그 자체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sup>4)</sup>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인교육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미술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동아 참 국어사전」 (서울 : 두산동아, 1998)

4) 김정희 외 6명.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 학지사, 2003) p.19

## 2) 미술교육의 역사

### ①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

한국의 미술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제도권 미술교육은 1895년 갑오경장이후 일본식의 미술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제교육은 이보다 훨씬 전인 고려나 조선조의 도화서나 공방에서 어깨 너머의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 ② 한일합방 이전의 미술교육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풀리고 외국과의 문물이 교류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의 선구를 이룩한 것은 1895년 4월에 공포한 한성사범학교 관제와 5월에 외국어학교관제, 7월의 소학교령의 발표였다. 그리고 중학교 관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899년(광부 3년) 4월에 이르러 처음 제정되었다.

### ③ 일제시대의 미술교육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빼앗긴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급박한 전쟁수행의 방편으로 몰락하던 때라 교과설정의 취지도 점점 탈색되어 갈 수밖에 없어서 《조선 교육령》의 공포로부터 개정의 빈도가 잦아지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제반 정무(政務)를 통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다음해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한국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교육을 구별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의 세 종류로 나누고 특히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시하였다.

한일합방 조약이 공포되면서 일본은 식민지 교육 일환으로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을 선포하면서 미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보통학교에서는 도화, 수공, 수예가 다루어지고 교과서의 임화나 사생화, 기억화 등이 지도되면서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으로 감상지도도 이루어졌다.

#### ④ 해방후의 미술교육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식민통치가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 자유와 인간을 존중하는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사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 분단이란 또 다른 비운에 처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미군정이 시작되고 우리는 새로운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육계에 민주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교육의 계기가 되었고, 1946년 11월 17일 미군정청의 교수요목 제정 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의 교과분과주의를 채택하여 교과별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에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한 교육법이 공포되어 민족적 전통을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려던 중 다시 한국은 6.25 동란으로 교육의 정체를 맞이하였다. 6.25 전세가 회복됨에 따라 문교부는 미국에서 피버디(Peabody) 교육 사설단을 유치하여 전국 사범학교 및 미술교사 연수회를 갖고 창조주의 미술과 공작 교수법을 연수하여 미술 교육의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

5) 김영미, “일반고등학교 미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4~7

<표 II-1> 미술교육의 역사

	시 기	내 용
1.	한국 미술교육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권 미술교육 1895년 갑오경장이후 일본식의 미술교육부터 시작.</li> <li>· 도제교육 고려나 조선조의 도화서나 공방에서 이루어짐.</li> </ul>
2.	한일합방 이전의 미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풀리고 외국과의 문물이 교류되면서 부터 시작.</li> <li>· 개혁의 선구를 이룩한 것은 1895년 4월에 공포한 한성사범학교 관제와 5월에 외국어 학교관제, 7월의 소학교령의 발표.</li> <li>· 중학교 관제는 1899년 4월에 제정</li> <li>· 갑오경장에 앞서 기독교 들어오면서 1885년에는 배재학당과 1886년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서구식 교육이 실시.</li> <li>· 1895년의 관립 한성사범학교가 설립, 서당식 교육에서 탈피하게 됨.</li> </ul>
3.	일제시대의 미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제반 정무(政務)를 통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li> <li>· 1911년 교육제도에 있어서 &lt;조선교육령&gt;을 공포,, 한국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li> <li>· 한일합방 조약이 공포되면서 일본은 식민지 교육 일환으로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을 선포하면서 미술교육을 실시.</li> <li>· 보통학교에서는 도화, 수공, 수예가 다루어지고 교과서의 입화나 사생화, 기억화 등이 지도되면서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으로 감상지도도 이루어짐.</li> </ul>
4.	해방후의 미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식민통치가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됨.</li> <li>그러나 미군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li> <li>· 1946년 11월 17일 미군정청의 교수요목 제정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의 교과분과주의를 채택.</li> <li>· 1950년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교육법이 공포되었으나 6.25동란으로 교육의 정체를 맞이함.</li> <li>· 6.25 전세가 회복됨에 따라 미국 피버디(Peabody) 교육사설단을 유치.</li> <li>· 현대 미술교육은 교수요목시대 이후,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과정에 점진적으로 발달.</li> </ul>

##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미술교육

한국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두드러진 특성은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의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감상’ 교육이 강조”되었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도록 교과 성격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상 교육이 감상 영역으로 분리되던 과거의 내용체제에서 벗어나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이 “학습활동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도록 하였다.<sup>6)</sup>

### 1) 학교 교육과정의 정의

교육현장에서 ‘학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5학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 6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제 5차 교육과정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존립하던 유일 체제에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거쳐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별 역할 분담 체제로의 전환이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편성한 ‘당해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학교의 교육설계도로서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고 교육 전략이며, 교육운영 세부시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목표와 학교장의 경영 방침, 전통, 특성 등이 반영되어 있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내용, 방법과 운영방안이 나

6) 이은적, “미술세계에서 미술교육으로 : 그 교육학적 변환 방법에 관한 연구“ (美術教育論叢, 第 13 輯, 2002 ) p.1.

타나있다. 그래서 각 학교는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였던 각 학교를 제각기 특색을 지닌 개성 있는 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교육개혁을 위하여 탄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7)</sup>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특색이 있는 특성화 학교로 많이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상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특성을 살리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미용 고등학교, 인터넷 고등학교, 영상디자인 고등학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인터넷 고등학교 등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를 살린 전문화된 실업계 고등학교로 변화될 것이다.

## 2) 미술교육의 형태

해방 이후의 교육은 한국의 국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의욕과 열성이 진작되며 한국적 교육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시작되었다.

### ① 교수요목 시대의 미술교육(1945-1954)

이 시대의 전체적인 특징은 해방과 사변의 혼란 속에서 명확한 목표와 내용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도 방향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시대라고 표현된다.

### ② 교과과정 시대의 미술교육(1955-1962)

미술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으로 초등 학교는 미술과 글씨본 등 2종 9권이었다. 중학교의 미술교과서는 미술, 서예로 나누고 고등학교는 공작이 추가된다.

### ③ 교육과정 시대 I의 미술교육(1963-1972)

외형상으로는 많은 이론이 유입되어 무비판적인 외국사조의 영향이 좋지 않은 결과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의 미술교육과가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의 계기도 따랐던 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된

---

7) 정영호, “실업계 고교생들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방안”(경상대학교 :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1)

다.

④ 교육과정 시대Ⅱ의 미술교육(1973-1981)

미술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문화의 사회적 팽창기능에 따른 수요이기도 하다.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여러 종류도 연구해 보려는 시도도 일맥상통하는 추세인 것이다.

⑤ 교육과정 시대Ⅲ의 미술교육(1982-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미술교과서의 종합적 편찬 발행, 국민정신의 강화, 민족의 전통미에 대한 기회확대 등이 제시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에서는 심각한 입시 경쟁으로 미술교과목이 형식에 치우치게 됐고 어떤 정치적 권력에 의해 편파적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sup>8)</sup>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입시문제는 r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 입시제도라는 틀 안에서만 맴돌며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입시제도만 바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

8) 김정, 「한국미술교육 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pp.155~156

<표 II-2> 미술교육의 형태

	시 대	년 도	내 용
1.	교수요목 시대	1945-1954	· 해방과 사변의 혼란. 그 속에서도 방향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시대.
2.	교과과정 시대	1955-1962	· 미술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으로 초등학교는 미술과 글씨 본 등 2종 9권, 중학교는 미술, 서예로 나뉘고, 고등학교는 공작이 추가.
3.	교육과정 시대 I	1963-1972	· 무비판적인 외국사조의 영향이 좋지 않은 결과 빚기도 했음. · 대학의 미술교육과가 신설.
4.	교육과정 시대 II	1973-1981	· 미술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 ·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여러 종류의 연구를 시도.
5.	교육과정 시대 III	1982-현재	· 미술교과서의 종합적 편찬 발행, 국민정신의 강화, 민족의 전통미에 대한 기회 확대 등 제시. · 고등학교에서는 심각한 입시경쟁으로 미술교과목이 형식에 치우치게 됐고 어떤 정치적 권력에 의해 편파적으로 기울어짐.

### 3) 미술과 교육 과정의 변천사

#### ① 제 1 차 교육 과정의 시기(1954~1963)

1954년에 제정, 공포된 「교과 과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교육 과정은 미국에서 도입된 생활·경험 중심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한다. 경험 중심의 교육은 일상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조형 감각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술 영역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과거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던 미술 교육을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습관 등을 교육 목표로 강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 환경과 교육 여건이 미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미술을 각 학년별로 2 단위씩 총 6 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

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미술·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3년간 총 4단위를 필수 교과에 넣어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는데, 미술에 흥미와 소질을 가진 학생에게는 학교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 ② 제 2 차 교육 과정의 시기(1963~1973)

제 1 차 교육 과정은 6·25 전쟁 직후에 제정되어, 당시의 혼란한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못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문교부가 1958년부터 교육 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여 오던 중, 5·16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개편된 미술 교과는 새로운 학설의 도입과 각종 학회를 설립하여, INSEAD(국제 미술 교육 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의 서울 대회 개최, 사범 대학의 교육 대학 승격, 각 대학에 미술 교육과 설치와 중학교 무시험 진학, 고등학교 학군제 입학 등 사회 전반에 교육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미치게 되었다.

이 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 '교육 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되어 오던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교육 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사명감을 자각할 것과 생산성·유용성을 강조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과에서의 교과 목표는 창조성·정서의 육성을 내세웠으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미적 경험을 표현하고 감상하며, 생활을 미화하고 합리적으로 꾸며나가는 실용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인간 육성에 치우친 감이 있다. 고등학교 미술 시간 배당은 공통 과정으로 미술에 6 단위를 배정하였다.

### ③ 제 3 차 교육 과정의 시기(1973~1981)

한국 교육 과정 제정상 처음으로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교육 과정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것을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 310호로 개정, 공포된 것이 제 3 차 교육 과정이다. 종래의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생활 경험이나 흥미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반성으로 교육 과정을 '각 학문간에 내재해 있는 지식 연구 과정의 체계적인 조직'으로 정의하여, 1960년대에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이른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존 지식의 전수만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되어 가는 지식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문 중심적인 교육 과정과 함께 제 3 차 교육 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이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된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이다. 헌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협동 정신(사회·도덕적 윤리면),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민족 미술을 소홀히 다루어 온 점, 국가 발전 추세에 부합되는 목표 및 내용 선정에 대한 필요성, 기술 교과와의 내용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내용의 체계와 구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 심상 표현과 함께 적용 표현을 강조하여 디자인, 공예 교육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 ④ 제 4 차 교육 과정의 시기(1981~1987)

제 4 차 교육 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4호로 개정되어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여 만든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토록 하여 연구 개발형(R & D)의 성격을 띤 것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당시는 1980년 새 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정치 및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어 이에 적절한 새 교육 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제 4차 교육 과정의 이념이나 사조는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지만,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바탕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 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또, 지금까지 소홀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 과정이 되게 하였다.

제 3차 교육 과정의 학습량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교육 및 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지적 학습으로 인하여 정의적인 영역의 학습이 소홀했다는 반성으로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한 전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미술과에서는 첫째, 미적 경험을 통한 국민 정신 교육을 강조하였고, 둘째, 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자율성·상상력·탐구적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셋째, 미적 정서를 강조하여 심미적 심성이 개발되도록 하였다. 넷째,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미적 경험에 맞는 내용을 정선하여 체계화하였으며, 다섯째, 미술의 여러 가지 면모를 폭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국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이 행동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미술 교육이 서서히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 ⑤ 제 5 차 교육 과정의 시기(1987~1992)

1987년 개정된 제 5 차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정하여, ‘중래의 교과 중심, 생활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을 조화 있게 체계화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 라는 기본 방향 아래, 미술과에서는 첫째, 교과 목표 및 지도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며, 둘째, 명문화된 교육 과정의 진술에서 그 내용 및 의미 전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고, 셋째, 미술과의 목표가 현대 미술의 흐름에 부합되고 한국적 교육 이념의 구현에 적절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상의 목표가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교과 목표는 초·중·고등 학교 공통으로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두었고, 학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미술의 세분화된 영역을 통합시켜 표현과 감상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 주체적인 문화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한국의 전통 미술을 강조하였다. 미술과의 시간 배당은 공통 필수 과목으로 4 단위(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은 미술·음악 중 택 1 하여 2 단위)를 배정하고 있다.

#### ⑥ 제 6 차 교육 과정의 시기(1992~1997)

과거의 교육 과정이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었다면, 제 6 차 교육 과정은 20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의 육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개발, 학생의 개성·능력·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교

육 과정 편성 운영 체제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의 강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하고 있다.

⑦ 제7차 교육 과정의 시기(1997~ )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미술과 생활 교과목의 목표는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운영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최종 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후 11, 12학년의 미술교과 관련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과 생활 교과목의 총괄 목표는 제 6차 및 제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의 총괄 목표와 지향하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교과목의 특성상 생활 속에 미술을 적용하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활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술의 활용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목표가 진술되어 있으며, 미술의 적용에 있어 미술과 보다 한 단계 높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술과 생활 교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10년 동안 학습한 미술과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술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을 생활에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을 둔다.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미술을 생활화하도록 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의 미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민족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II-3>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교육 과정 시기	내 용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p>시기 : 1954년 제정.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짐.                      배경 : 미국에서 도입된 생활·경험 중심의 교육 이념에 기초.                      목표 :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습관 등을 강조.                      미술시간배당 : 미술·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3년간 총 4단위를 필수                      교과에 넣어 이수.</p>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p>시기 : 1958년부터 5·16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전                      면적으로 개편.                      변화 : INSEA(국제미술교육협회)의 서울 대회 개최, 사범대학의 교육대학                      승격, 각 대학에 미술 교육과 설치와 고등학교 학군제 압학 등 사회                      전반에 교육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미침.                      내용 :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사명감을 자각할 것과 생산성·유용성을 강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                      점을 둔.                      목표 : 창조성·정서의 육성을 내세웠으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미적 경험을                      표현하고 감상하며, 생활을 미화하고 합리적으로 꾸며 나가는 실용주                      의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인간 육성에 치우침.                      미술시간배당 : 공통과정으로 미술 I 에 6단위를 배정.</p>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p>시기 : 처음으로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교육 과정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것을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 310호로 개정,                      공포.                      정의 : 각 학문간에 내재해 있는 지식 연구과정이 체계적인 조직으로 정의.                      배경 : 1960년대에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 바탕</p>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p>시기 :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개정되어 한국 교육 개발원                      에 위탁하여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함으로써 연구 개발                      형의 성격을 띤 큰 변화.                      변화 : 종래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바탕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                      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 과정의 정신에 반영.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함.                      강조 : 첫째, 미적 경험을 통한 국민 정신 교육을 강조. 둘째, 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자율성·상상력·탐구적 태도를 강조. 셋째, 미적                      정서를 강조하여 심미적 심성이 개발. 넷째,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                      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미적 경험에 맞는 내용을 정선하여 체계화.                      다섯째, 미술의 여러 가지 면모를 폭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을 강조.                      목표 :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인격을                      함양, 우리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국민적 자질 육성.</p>

<p>제5차 교육과정 (1987~1992)</p>	<p>시기 : 1987년 개정          방향 :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정하여, '종래의 교과중심, 생활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 있게 체계화. 미래 사회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목표 : 초·중·고등학교 공통으로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 학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미술의 세분화된 영역을 통합시켜 표현과 감상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 주체적인 문화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한국의 전통미술을 강조.          시간배당 : 공통 필수 과목으로 4단위(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은 미술·음악 중 택 1하여 2단위)를 배정.</p>
<p>제6차 교육과정 (1992~1997)</p>	<p>변화 : 과거의 교육 과정이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 변화와 요구에 개정.          방향 :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 창의적,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창의적인 능력 개발, 학생의 개성·능력·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교육 과정 편성을 운영 체제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의 강화를 방침.          강조 : 미적 교육의 정신을 반영.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면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 첫째,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상, 창조, 개성 교육을 강조. 둘째, 미술과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감성적 체험 강조. 셋째, 중학교 교육과의 지속성을 살리면서 전문적인 미술 내용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구성. 넷째, 미술과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 다섯째, 미적 감성을 개발하고 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표현활동과의 연관성을 살린 감상 지도에 유의. 여섯째,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통 미술 지도를 강화. 지역 사회의 전통미술에도 관심 갖음. 일곱째, 지도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제시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p>
<p>제7차 교육과정 (1997~)</p>	<p>목표 :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          목적 : 미술과 생활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10년 동안 학습한 미술과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술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미술을 생활에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강조 :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미술을 생활화하도록 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의 미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민족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p>

<표Ⅱ-4 > 6·7차 교육과정 내용 비교9)

제 6차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비 고
<p>(1)내용 체계 미술과 생활,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감상의 6개 영역의 고등학교 내용 체계</p> <p>(2)내용 · 생활고 미술 - 생활 속에서 형태의 특징을 발견하고 미적 가치 이해 / 미술과 생활의 관계 이해 · 회화 - 대상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독창적으로 표현 / 경험한 것, 생각한것의 느낌과 상상 등의 주제를 독창적으로 표현 · 조소 - (회화의 동일) · 디자인 - 시각 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생활용품 등을 주제에 맞게 구상하여 독창적으로 표현 · 서예 - 한글, 한문의 서법을 익혀서 표현 / 한글, 한문의 전각의 특징을 익혀서 표현 · 감상 -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 / 다양한 미술 문화의 변천과 특성 이해</p>	<p>(1)내용 체계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의 내용 체계</p> <p>(2)내용 · 미적 체험 -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미술과 문화의 관계 이해(다양한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하여 미술 문화의 특성 이해) · 표현 -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생각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표현 방법(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 / 표현 방법(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 / 조형 요소와 원리(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표현 재료와 용구(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 · 감상 - 미술품 감상(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 이해 및 판단)/미술 문화유산 이해(한국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배경 이해)</p>	<p>·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일관성 있는 체계를 따랐다</p> <p>· 하부 내용에서는 학교 군별(10학년)내용을 제시하였다.</p> <p>·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영역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p> <p>· 영역별로 각 내용에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제시하고, 하부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p>

9)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서울 : 교육과학사) p.219

4) 제 7차 미술교육의 중점

미술과는 미적 교육의 정신을 반영하여 미술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상, 창조, 개성 교육을 더욱 강조한다. 둘째, 미술과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감성적 체험을 강조한다. 셋째, 중학교 교육과의 지속성을 살리면서 전문적인 미술 내용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넷째, 미술과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한다. 다섯째, 미적 감성을 계발하고 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표현 활동과의 연관성을 살린 감상 지도에 유의한다. 여섯째, 한국의 전통 미술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 갈 수 있도록 전통 미술 지도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전통 미술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일곱째, 지도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제시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sup>10)</sup> 위 사항에 중점을 두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인 교육을 제대로 이루기 위하여 미술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Ⅱ-5> 제 7차 미술교육의 중점

첫 째	·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상, 창조, 개성 교육을 더욱 강조.
둘 째	· 미술과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감성적 체험을 강조.
셋 째	· 중학교 교육과의 지속성을 살리면서 전문적인 미술 내용의 체계화를 이해.
넷 째	· 미술과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
다섯째	· 미적 감성을 계발하고 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표현 활동과의 연관성을 살린 감상 지도 유의.
여섯째	· 한국의 전통미술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 갈 수 있도록 전통미술 지도를 강화, 지역 사회의 전통 미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곱째	· 지도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제시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있도록.

10) <http://www.moe.go.kr> (교육과정 정보서비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10.미술 -)

#### 5) 제7차 미술 교육과정의 성격

미술과 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은 제 6차 교육 과정에서의 미술과 교육의 성격과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과 교육은 미술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근본적인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라면, 체제적인 면에서 제 6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급별로 미술과 교육의 성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제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미술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성격의 진술에 있어서는 미술이라는 교과 의 특성을 살려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강조하 고자 하였으며, 미술과 교육의 본연적인 측면과 목적, 세부적인 목표, 그리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 급별의 내용 구조 및 내용 영역별 특징과 지도 방법 등을 폭넓게 고찰하여 그 성격을 제시하였다.<sup>11)</sup> 그러나 제 7차 교육과 정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은 제 6차 교육과정과는 별반 다를것이 없 다. 달라진 것 이 있다면 미술과목은 선택 과목이라는 점과 수업 시간 수가 줄었다는 것뿐이다. 미술 과목의 줄어든 수업 시간 수는 인성교육과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술과 교육의 세부적인 목표, 미술과의 내용의 구조와 영역별 특징 그리고 지도 방법을 더더욱 세밀하고 폭넓게 고찰하여 미술과 지도에 신경을 써야한다.

#### 6) 미술교육과 입시제도

대입제도는 해방이후 13차례나 바뀌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새 입시제도에 보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에 매달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sup>12)</sup>

11)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pp.222~223

12) 김영미 “일반고등학교 미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3) p.12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대학입시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신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오지 않고 대학교육의 수요 과다에서 빚어진 과열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번하게 변화해 왔다. 미술이라는 과목도 대학 입시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 높은 미술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사고와 참된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느 과목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입시 교육이라는 딱지는 버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미술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대부분은 10대 후반을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받으면서 보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고등학교든 ‘대학진학’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기계적으로 학교에 다녔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라 하면,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장소로서 일반계, 즉 인문계 고등학교를 연상하게 된다. 또한 교육문제라고 하면 대학입시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교육문제 중에서 대학 입학과 관련된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대학 입시 정책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학 입학이 지니는 ‘삶의 의의’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거의 모든 고교 졸업자를 대학 입학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은 전인교육과 거리가 먼 입시교육이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 진학을 해야만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집약된다.<sup>13)</sup>

즉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빚어진 과열 경쟁 현상이라면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확충이나,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입

---

13) 김철훈, 「한국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서울 : 문음사) pp.9~10

시제도를 바꾸는 것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3. 미술교육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

#### 1) 고등학교 미술과 영역 및 내용<sup>14)</sup>

영역	내용
미술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을 발견하고, 미적 가치를 이해하기.</li> <li>· 미술과 생활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li> </ul>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기.</li> <li>·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의 느낌과 상상 등의 주제를 독창적으로 표현하기.</li> </ul>
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기.</li> <li>·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의 느낌과 상상 등의 주제를 독창적으로 표현하기.</li> </ul>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등을 주제에 맞게 구상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하기.</li> <li>· 여러 가지 생활 용품을 주제에 맞게 구상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하기.</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기.</li> <li>· 다양한 미술 문화 이해하기.</li> </ul>
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한문의 서법을 익혀서 표현하기.</li> <li>· 한글, 한문 전각의 특성을 익혀서 표현하기.</li> </ul>

#### 2) 청소년의 인성 발달

중등학교가 수용·교육하는 ‘청소년’은 글자 그대로 소년과 청년의 합성어

14) 김상호,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진로지도 방안 연구”(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10

로서, 아동이 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의 특성을 갖는다.

청소년기를 뜻하는 영어의 adolescence라는 용어는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 즉 ‘성숙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되었다. 성숙이란 신체적·정서적·지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발달된 상태나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란 심신양면에 걸쳐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하여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해 가는 시기를 일컫는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 기준 설정은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하여 말하기 어렵다. 또한 사람의 성장은 점진적이고 불확실하여 한 단계에서 다음의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성장이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기간과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sup>15)</sup>

### 3) 미술교육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미적 발달은 그 특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만큼 개인별로 또 지역이나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 어떤 이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이는 거의 미대학생 수준에 도달해 있는 수도 있다. 그리고 미술에서도 회화에 관심 있는 학생과 서예에 관심 있는 학생은 서로 견주어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각기 다른 지식과 기능을 가지는 수가 많다. 그러나 11, 12세 초부터 17,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공통적 특성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정서나 인지, 사회성, 신체발달 등에서 개개인의 발달 특성만큼 공통되는 일반적 경향도 엿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sup>16)</sup>

15)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p.31

16)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p.47

그러므로 미술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감성교육, 체험교육을 통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타인의 이해와 협동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로인해 정체성의 형성은 미술 활동을 통한 자기 감정 인식과 자기 감정 조절, 자기 이해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고, 학생들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 개념, 상상 등을 미술을 통해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될 것이고, 자기자신을 표현하는데 능숙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미술적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감정의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해가 가능해진다. 인성교육은 미술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과만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미술을 통한 인간의 내적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4. 선행연구

신경선<sup>17)</sup>은 예술 고등학교학생들과 일반 고등학교 미술전공 학생들의 진로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진로 상담에서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위한 연구에서 예술 고등학교에 비해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미술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로 상담 현장에서 진로인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형들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진로인식 수준이 낮은 미술을 전공하는 남학생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김상호는<sup>18)</sup> 대학 진학이 고등학교의 주된 교육목적이 되고 있는 교육 왜곡 현상에서 벗어나 학교가 전인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미술 교사는 진로지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학습 자료나 정보를 확충하여 진로 교육에 대한 연구와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한다. 그리고 미술 관련 학과에서 진로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 지도안 개발과 교수·학습을 통해 미술 교과에서의 진로지도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여 건전한 직업관 정립과, 진로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영호<sup>19)</sup>는 학교 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대학 진학열을 진정시키고,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성이 강한 인력을 배출해야 하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합리적

---

17) 신경선,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수업의 평가방법 사례연구”  
(부산 :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 김상호,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진로지도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 정영호, “실업계 고교생들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자율방안”  
(경남 :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으로 진로가 선택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많은 학생들이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업 교육과정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올바른 직업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지조사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은 학생들의 일반문항, 미술 수업에 관한 문항, 심리·정서 영역에 관한 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설문조사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Ⅲ-1 > 연구조사대상

구 분			명 수
인 문 계	남		88
	여		92
합 계			180
실 업 계	상업 고등학교	여	45
	정보산업 고등학교	여	29
	인터넷 고등학교	남	78
		여	28
합 계			180

####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내용의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과 SPSS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문항별 무응답이 있는 자료는 missing value처리 하였다.

## IV.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조사 대상자 360명에 대한 변인별 빈도를 살펴보면 <표IV-1>과 같다.

본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인문계의 경우 남학생 88명과 여학생 92명 이었으며, 실업계는 남학생 78명과 여학생 102명 이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로는 인문계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워서’(78명, 4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나 주위의 권유’(36명, 20.8%)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업계에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66명, 3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적 때문에’(59명, 33.9%)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 물음에서 인문계 70명(39.1%)과 실업계 60명(33.7%) 모두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인문계에서는 ‘실력에 맞는 학과’(55명, 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적성과 취미에 맞음’(42명, 23.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업계에서는 ‘적성과 취미에 맞음’(74명, 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8명, 15.6%)라는 응답이 많았다. 미술대학이나 미술과 관련된 곳에 취업을 희망하는가 라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인문계 151명(84.4%), 실업계 140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미술과 관련된 곳의 대학이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할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미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표IV-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 미술 수업에 관한 특성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성별	남	88	48.9	78	43.3
	여	92	51.1	102	52.6
	합 계	180	100.0	180	100.0
학년	1학년	63	35.0	62	34.4
	2학년	99	55.0	66	40.0
	3학년	18	10.0	52	74.3
	합 계	180	100.0	180	100.0
소속학교	인문계	180		100.0	
	실업계		180		100.0
	합 계	180	100.0	180	100.0
입학하게 된 동기	가정의 경제적 사정			7	4.0
	성적때문에	32	18.5	59	33.9
	졸업후 취직을 하려고	15	8.7	9	5.2
	부모나 주위의 권유	36	20.8	21	12.1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12	6.9	66	37.9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78	45.1	12	6.9
	합 계	173	100.0	174	100.0
학교에 대한 만족	매우 불만족 한다	33	18.4	28	15.7
	조금 불만족 한다	43	24.0	33	18.5
	보통이다	70	39.1	60	33.7
	조금 만족한다	26	14.5	25	14.0
	매우 만족한다	7	3.9	32	18.0
	합 계	179	100.0	178	100.0
진학하게 된 동기	실력에 맞는 학과	55	31.3	17	9.4
	부모나 주위의 권유	26	14.8	19	10.6
	적성과 취미에 맞음	42	23.9	74	41.1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11	6.3	28	15.6
	선생님의 권유로	4	2.3	24	13.3
	기타	38	21.6	18	32.1
	합 계	176	100.0	180	100.0
미술대학이나 미술과 관련된 곳의 취업	희망한다	28	15.6	39	21.7
	희망하지 않는다	151	84.4	140	77.8
	합 계	179	100.0	180	100.0

<표IV-2> 미술 수업 시간의 수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더 늘려야 한다	50	28.2	53	29.6
현재 시간 수 적당	54	30.5	68	38.0
줄여도 괜찮다	32	18.1	32	17.9
잘 모르겠다	41	23.2	26	14.5
합 계	177	100.0	179	100.0

미술 시간의 수에 대한 질문에 인문계50명(28.2%), 실업계68명(38.0%) 모두 ‘현재 시간 수 적당’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문계 50명(28.2%)과 실업계 53명(29.6%) 모두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표IV-3> 미술 수업시간의 참여도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열심히 활동한다	45	25.3	43	23.9
다른 친구들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	11	6.2	13	7.2
보통이다	77	43.3	80	44.4
선생님이 시켜서	22	12.4	24	13.3
하지 않는다	18	10.1	19	10.6
기타	5	2.8	1	.6
합 계	178	100.0	180	100.0

미술 시간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 77명(43.3%)과 실업계 80명(44.4%) 모두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문계 45명(25.3%)과 실업계 43명(23.9%)이 ‘열심히 활동

한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교실 안에서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미술 전시 관람 및 미술 행사 참여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표IV-4> 미술수업의 입시제도 영향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영향을 많이 받는다	14	7.9	17	9.5
조금 받는다	27	15.3	49	27.4
그저 그렇다	71	40.1	66	36.9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65	36.7	47	26.3
합 계	177	100.0	179	100.0

미술 수업이 입시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인문계 71명(40.1%), 실업계 66명(36.9%) 모두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도 입시에 취중하지 않는 참다운 미술 교육을 해야한다.

<표IV-5> 학교 미술교육의 큰 문제점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미술대학 입시 위주의 실기수업	28	15.8	25	14.5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여건	80	45.2	75	43.6
교육과정의 문제	41	23.2	46	26.7
기타	28	15.8	26	15.1
합 계	177	100.0	172	100.0

학교 미술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문계는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여건'(80명, 4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과정의 문제'(41명, 23.2%)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업계의 경우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여건’(75명, 43.6%)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문제’(46명, 26.7%)라는 응답이 많았다. 미술실기 교실과 미술 재료 등 미술에 관한 환경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학교와 교육부는 미술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표IV-6> 미술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지 식	6	3.5	3	1.7
정 서	24	14.0	17	9.9
창의성	59	34.3	67	39.0
인격향상	3	1.7	7	4.1
기 능	7	4.1	8	4.7
감 각	52	30.2	56	32.6
기 타	21	12.2	14	8.1
합 계	172	100.0	172	100.0

미술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빈도를 살펴보면 미술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인문계 59명(34.3%), 실업계 67명(39.0%)이 ‘창의성’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 52명(30.2%), 실업계는 56명(39.0%)이 ‘감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IV-7> 학교 미술수업의 창의성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창의성있게 잘 하고 있다	21	11.8	41	22.8
그저 그렇다	109	61.2	101	56.1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8	27.0	38	21.1
합 계	178	100.0	180	100.0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 창의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인문계에서는 ‘그저 그렇다’(109명, 6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48명, 27.0%)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창의성있게 잘 하고 있다’(21명, 11.8%)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그저 그렇다’(101명, 56.1%)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창의성있게 잘 하고 있다’(41명, 22.8%)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38명, 21.1%)라는 응답을 하였다. 현재 학교에서의 미술 수업은 창의성은 뒷전이고 형식적인 미술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창의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IV-8> 미술과목의 흥미도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흥미를 느끼고 있다	57	32.0	65	36.3
흥미는 없으나 싫지도 않다	68	38.2	74	41.3
흥미가 없다	53	29.8	40	22.3
합 계	178	100.0	179	100.0

미술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흥미는 없으나 싫지도 않다’(68명, 38.2%)라는 응답을 가장 많

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흥미가 없다'(53명, 29.8%)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흥미는 없으나 싫지도 않다'(74명, 41.3%)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65명, 36.3%)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흥미가 없다'(40명, 22.3%)라는 응답을 하였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미술수업이란 사각형이라는(교실안, 책상위, 도화지 위) 틀에서 벗어나 미술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IV-9>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10	17.5	15	22.4
미술수업이 재미가 있어서	40	70.2	39	58.2
미술선생님이 좋아서	2	3.5	3	4.5
기타	5	8.8	10	14.9
합 계	57	100.0	67	100.0

미술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인문계 40명(70.2%)과 실업계 39명(58.2%) 모두 '미술수업이 재미가 있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문계 10명(17.5%)과 실업계 15명(22.4%) 모두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미술 수업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교사가 계획적인 지도안과 수업준비를 하고 미술수업에 늘 변화된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서기 때문에 학생들도 흥미를 갖고 미술수업을 받고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표IV-10>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미술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35	64.8	29	69.0
미술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11	20.4	7	16.7
미술선생님이 싫어서	4	7.4	2	4.8
기타	4	7.4	4	9.5
합 계	54	100.0	42	100.0

미술에 흥미가 없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인문계는 ‘미술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35명, 64.8%)라는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에 재미가 없어서’(11명, 20.4%)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에서는 ‘미술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29명, 6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술수업이 재미가 없어서’(7명, 16.7%)라는 응답을 하였다. 미술 교육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미술을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술은 꼭 소질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대다수 갖고 있는 것 같다.

<표Ⅳ-11> 미술수업 시간이 힘들고 싫다고 느낄 때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준비물이 많고 귀찮아서	64	36.4	38	23.3
돈이 부족해서	16	9.1	16	9.8
실기 능력이 없어서	44	25.0	44	27.0
하기 싫어서	13	7.4	18	11.0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2	1.1	1	.6
작품 완성이 잘 안되어서	32	18.2	39	23.9
기타	5	2.8	7	4.3
합 계	176	100.0	163	100.0

미술수업을 할 때 힘들거나 싫다고 느낀적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문계는 ‘준비물이 많고 귀찮아서’(64명, 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기 능력이 없어서’(44명, 25.0%)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작품 완성이 잘 안되어서’(32명, 18.2%)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에서는 ‘실기 능력이 없어서’(44명, 27.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품 완성이 잘 안되어서’(39명, 23.9%)라는 응답을 하였다. 미술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 안에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필요한 미술재료 구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라는 문제점도 포함되어있다.

<표Ⅳ-12>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미술교육의 역할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정서 순화	32	18.4	20	11.8
인격을 높여준다	9	5.2	11	6.5
창의력을 키워준다	68	39.1	77	45.6
타 교과학습에 도움을 준다	3	1.7	3	1.8
지능 개발에 유리	2	1.1	10	5.9
상식을 높여준다	5	2.9	3	1.8
미적 표현능력을 높여준다	45	25.9	39	23.1
기타	10	5.7	6	3.6
합 계	174	100.0	169	100.0

현재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미술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창의력을 키워준다’(68명, 39.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적 표현능력을 높여준다’(45명, 25.9%)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 순화’(32명 18.4%)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창의력을 키워준다’(77명, 45.6%)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적 표현능력을 높여준다’(39명, 23.1%)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IV-13> 미술을 전공으로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적성에 맞아야 한다	60	33.7	70	42.2
돈이 있어야 한다	55	30.9	32	19.3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18	10.1	29	17.5
창의력이 뛰어나야 한다	40	22.5	33	19.9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3	1.7	1	.6
기타	2	1.1	1	.6
합 계	178	100.0	166	100.0

미술을 앞으로 전공하려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적성에 맞아야 한다’(60명, 33.7%)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돈이 있어야 한다’(55명, 30.9%)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적성에 맞아야 한다’(70명, 4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창의력이 뛰어나야 한다’(33명, 19.9%)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 3. 심리·정서 영역에 관한 특성

평소 생활 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림(만화, 디자인, 꾸미기, 낙서 등)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가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표IV-14>와 같이 응답하였다. 인문계는 ‘가끔 그리고 싶다’(75명, 42.1%)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실업계는 ‘가끔 그리고 싶다’(94명, 53.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문계 50명(28.1%), 실업계 40명(22.6%) 모두 ‘자주 느끼고 있으

며 그리고 싶다'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학생들이 미술을 멀게만 생각하지 않게끔 학생 누구나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자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미술 교육 자체가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표IV-14> 평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층동

<표IV-15>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자주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싶다	50	28.1	40	22.6
가끔 그리고 싶다	75	42.1	94	53.1
그리고 싶은 적이 없다	51	28.7	37	20.9
기타	2	1.1	6	3.4
합 계	178	100.0	177	100.0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그리고 싶다	66	37.1	59	32.8
그리고 싶지 않다	106	59.6	102	56.7
기타	6	3.4	19	10.5
합 계	178	100.0	180	100.0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그림(추상화, 구상화, 민화, 낙서 등)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문계는 '그리고 싶지 않다'(106명, 5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싶다'(66명, 37.1%)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실업계는 '그리고 싶지 않다'(102명, 5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싶다'(59명, 32.8%)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미술은

소질이 있어야 하고, 잘 그려야만 한다면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을 때 미술을 통하여 풀지 못하고 있다, 미술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표IV-16>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미술수업의 영향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12	6.8	13	7.3
조금 풀린다	38	21.5	30	16.8
그저 그렇다	46	26.0	66	36.9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9	27.7	42	23.5
더 쌓인다	30	16.9	23	12.8
기타	2	1.1	5	2.8
합 계	177	100.0	179	100.0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부분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는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미술 수업을 할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문계는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49명, 27.7%)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46명, 26.0%)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그저 그렇다’(66명, 36.9%)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42명, 23.5%)라는 응답을 다음으로 하였다.

<표IV-17>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와 미술의 역할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큰 역할을 한다	18	10.1	16	8.9
조금 역할을 한다	48	27.0	49	27.4
보통이다	41	23.0	57	31.8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39	21.9	35	19.6
전혀 관계가 없다	27	15.2	18	10.1
기타	5	2.8	4	2.2
합 계	178	100.0	179	100.0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고민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미술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최우선으로 학생들이 미술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소질이 있어야 하고 잘 그려야한다라는 평가는 하지 말고, 미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인 것 같다. 청소년들의 비행·가출·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은 정서 순화와 정서 발달에 얼마만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는 ‘조금 역할을 한다’(48명, 27.0%)라는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41명, 23.0%)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보통이다’(57명, 31.8%)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금 역할을 한다’(49명, 27.4%)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IV-18> 미술시간에 대한 생각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좋아한다	63	35.4	69	39.4
싫어한다	54	30.3	43	24.6
보통이다	61	34.3	63	36.0
합 계	178	100.0	175	100.0

미술시간에 대한 생각에 인문계는 ‘좋아한다’(63명, 35.4%), ‘보통이다’(61명, 34.3%), ‘싫어한다’(54명, 3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업계는 미술시간에 대해 ‘좋아한다’(69명, 39.4%), ‘보통이다’(63명, 36.0%), ‘싫어한다’(43명, 24)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입시와 취업이라는 긴장과 부담 속에서 미술 수업을 받으면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어 좋아하는 것 같다.

<표IV-19> 미술시간이 좋은 이유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재미있고 즐겁다	26	40.6	18	26.9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20	31.3	24	35.8
부담감이 적다	9	14.1	5	7.5
미술이 쉽다			2	3.0
선생님이 좋다	1	1.6	2	3.0
적성에 맞아 흥미가 있다	7	10.9	15	22.4
기타	1	1.6	1	1.5
합 계	64	100.0	67	100.0

미술시간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인문계는 ‘재미가 있고 즐겁다’(26명, 40.6%)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20명,

31.3%)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24명, 35.8%)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미있고 즐겁다’(18명, 26.9%)라는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적성에 맞아 흥미가 있다’(15명, 22.4%)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IV-20>미술시간이 싫은 이유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재미없고 지겨워서	11	21.2	9	22.0
자유롭지 못해서	1	1.9	3	7.3
부담스러워서	5	9.6	4	9.8
어려워서	11	21.2	11	26.8
선생님이 싫어서	6	11.5	3	7.3
적성에 맞지 않아서	15	28.8	9	22.0
기타	3	5.8	2	4.9
합 계	52	100.0	41	100.0

미술 시간이 싫은 이유라는 질문에 인문계는 ‘재미없고 지겨워서’(11명, 21.2%)라는 응답과 ‘어려워서’(11명, 21.2%)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어려워서’(11명, 26.8%)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미가 없고 지겨워서’(9명, 22.0%)라는 응답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9명, 22.0%)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IV-21> 그림을 보거나 그릴 때 부모님의 반응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못하도록 강하게 막으신다	11	6.2	7	4.0
조금 제지를 하신다	46	25.8	37	20.9
관심이 없으시다	73	41.0	83	46.9
계속하도록 하신다	30	16.9	41	23.2
칭찬을 하신다	10	5.6	6	3.4
기타	8	4.5	3	1.7
합 계	178	100.0	177	100.0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책을 볼 때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 할 때 인문계는 ‘관심이 없으시다’(73명, 41.0%)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실업계 또한 ‘관심이 없으시다’(83명, 46.9%)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인문계는 ‘관심이 없으시다’ 다음으로 ‘조금 제지를 하신다’(46명, 25.8%)라는 응답을 하였고, 실업계는 ‘계속하도록 하신다’(41명, 23.2%)라는 응답을 하였다. 가정에서의 학생의 미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관심을 갖어 준다면 학생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될 것이고, 미술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표IV-22> 미술과 관련된 직업이 있는 가족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있다	29	16.4	34	19.0
없다	148	83.6	145	81.0
합 계	177	100.0	179	100.0

가정에 미술과 관련된 직업이 있는 가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 148명(83.6%), 실업계 145명(81.0%) 모두 ‘없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또한 인문계 29명(16.4%), 실업계 34명(19.0%) 모두 관련된 가족이 '있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가족이 주위에 있다면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나 미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표IV-23> 미술 행사 참여 계기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혼자 가고 싶어서	15	8.5	20	11.5
선생님의 권유로	55	31.3	61	35.1
친구의 권유로	12	6.8	15	8.6
부모님의 권유로	18	10.2	14	8.0
기타	76	43.2	64	36.8
합 계	176	100.0	174	100.0

미술 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 주로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 55명(31.3%), 실업계 61명(35.1%)모두 '선생님의 권유로' 간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와 주위의 사람들 권유에 위해서라도 미술 전시 관람이나 미술 행사에 참여하여 학생들 자신의 문화인으로써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표IV-24> 미술 행사의 참여의 동행자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부모님	25	8.5	8	4.5
친구들	69	39.2	70	39.8
혼자서	7	4.0	11	6.3
때에 따라서	28	15.9	29	16.5
전혀 가지 않는다	50	28.4	48	27.3
기타	7	4.0	10	5.6
합 계	176	100.0	176	100.0

미술 관련 행사의 참여나 전시회 관람은 누구와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는 ‘친구들’(69명, 39.2%)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혀 가지 않는다’(50명, 28.4%)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친구들’(70명, 39.8%)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전혀 가지 않는다’(48명, 27.3%)라는 응답을 하였다. 교육부, 학교, 그리고 미술교사들은 학생들이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미술 관련된 곳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대회 등의 행사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전시장이나 책에서 마음에 드는 미술 작품을 보았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표Ⅳ-25>와 같이 응답하였다. 인문계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58명, 32.8%)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한 감동이 온다’(45명, 25.4%)라는 응답을 하였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 진다’(41명, 23.2%)라는 응답을 하였다. 실업계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66명, 3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 진다’(49명, 27.7%)라는 응답을 하였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라는 이유 중 하나는 미술의 감상 방법이나 미술에 대한 이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감상은 어느 영역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술 감상법과 미술 이론을 알게된다면 작품

을 보는 느낌과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미술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은 미술 감상 영역을 꼭 넣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미술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화인으로써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표IV-25> 미술 작품을 보고 난 후의 느낌

구 분	인 문 계		실 업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진한 감동이 온다	45	25.4	15	8.5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 진다	41	23.2	49	27.7
기쁘고 즐거워 진다	15	8.5	28	15.8
별다른 느낌이 없다	58	32.8	66	37.3
오히려 불안해 진다	5	2.8	4	2.3
기타	13	7.3	15	8.5
합 계	177	100.0	177	100.0

#### 4. 연구의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술 수업과 심리·정서 영역, 미술교육의 만족도와 인성교육 그리고 미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 에서도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학교의 미술교육에서 인성 또는 인격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미술 교육이 향상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술 시간이 힘들고 싫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문계의 경우 준비물이 많고 귀찮아서(64명, 62.7%)라는 응답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학교의 미술 교육의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여건(80명, 45.2%)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2)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미술교육의 역할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들은 그 답변에 그저 그렇다라고 나타났다.

(3) 미술을 전공으로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문계에서는 적성에 맞아야 하고(60명, 33.7%) 실업계에서도 적성에 맞아야 한다(70명, 42.2%)라는 답변을 하였다.

(4) 인문계의 경우 평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있냐에 대한 질문에 가끔 그리고 싶다(75명, 42.1%)라고 나타났고, 실업계의 경우도 가끔 그리고 싶다(94명, 53.1%)라고 나타났다

(5) 그러나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리고 싶지 않다(인문계 : 106명, 59.6%, 실업계 : 102명, 56.7%)라고 응답하였다.

미술과 좀더 친밀감을 갖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6) 미술 수업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인문계 : 49명, 27.7%, 실업계 : 42명, 23.5%)라고 나타났다. 미술수업이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미술 시간외에도 미술행사, 관람 등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술시간에 대한 생각에는 인문계(63명, 35.4%)와 실업계(69명, 39.4%) 모두 좋아한다고 나타났다. 좋아하는 이유는 인문계에서는 재미있고 즐겁다(26명, 40.6%)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실업계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24명, 35.8%)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미술시간이 싫은 이유는 인문계는 재미없고 지겨워서(11명, 21.2%), 어려워서(11명, 21.2%)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실업계에서는 어렵다(11명, 26.8%)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미술이라는 과목이 너무 잘 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된다.

(7) 청소년들의 비행·가출·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은 정서 순화와 정서 발달에 얼마만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문계는 ‘조금 역할을 한다’(48명, 27.0%)라는 응답을 하였고, 실업계는 ‘보통이다’(57명, 31.8%)라는 응답이 많았다.

(8)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책을 볼 때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인문계는 ‘관심이 없으시다’(73명, 41.0%)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실업계 또한 ‘관심이 없으시다’(83명, 46.9%)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나타났다.

(9) 미술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계기는 기타(76명, 43.2%)라고 인문계에서 많이 응답하였고, 실업계에서 또한 기타(64명, 36.8%)라는 대답을 하였다. 기타라는 응답에는 인문계 실업계 모두 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가지 않는다(인문계 : 50명, 28.4%, 실업계 : 48명, 27.3%)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미술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인문계는 친구들과 동행(69명, 39.2%)을 하고 실업계 또한 친구들과 동행(70명, 39.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미술 전시장이나 책에서 마음에 드는 미술 작품을 보았을 때 느낌은 인문계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58명, 32.8%)라는 응답이 나타났고, 실업계에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66명, 37.3%)라고 조사되었다.

## 5.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미술수업 지도안 및 시간표

1) 미술수업 지도안

①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수업 지도안

단 원	。 디자인- 전통문양그리기		차시	1/3~3/3	
학습목표	1. 고유의 전통문양을 이해하고 문양의 특징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2.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료준비	。 교사→ 교과서, 지도안, 작품계획서 。 학생→ 필기도구,				
차시	교 수 · 학 습 활 동		학 생		
	교 사	학 생	시간 (분)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확인</li> <li>자리배치</li> <li>수업준비 확인</li> <li>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을 부른다.</li> <li>수업전 조별로 자리에 앉도록 한다.</li> <li>본시 학습목표물 제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리에 앉아 대답한다.</li> <li>모둠 별로 자리에 앉는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 별 자리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양에 대한 설명</li> <li>작품계획서 작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양 대해 설명한다.</li> <li>준비된 작품계획서를 배부한다.</li> <li>계획서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li> <li>순회하며 필요시 토의에 참여한다.</li> <li>작품계획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양에 대해 인지한다.</li> <li>모둠 별로 조용히 작품계획서를 받는다.</li> <li>계획서작성 시 유의점에 대한 인지한다.</li> <li>모둠 별 대화에 참여한다.</li> <li>모둠 장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작성한다.</li> </ul>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T (Internet활용)</li> <li>학생작품감상</li> <li>모둠 별 특색이 나타나는지 확인</li> <li>산만하지 않도록 지도</li> </ul>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시예고 및 모둠별 준비물을 모둠 장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시예고 및 준비물을 숙지한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작업임을 강조</li> </ul>

② 실업계 고등학교 미술수업 지도안

단 원	소묘 - 원기둥 그리기		차시	1/2
학습목표	1. 빛의 방향에 따른 원기둥의 명암 단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교 수 · 학 습 활 동		학 생	
	교 사 활 동	학 생	시간 (분)	유의점
도 입	· 출석확인 · 전시 학습 확인	· 직선연습 자료 확인 · 연필 선, 연필 잡는 법 재차 지도	· 직선 연습자료 보충	10
전 개	· 명암5단계 · 반사광	· 원기둥의 명암단계 설명 · 반사광의 개념과 위치 설명. · 직선을 이용한 표현 방 법 지도 · 순회하며 개별 지도 (형태의 안정감, 명암표 현, 선 굵기에 대한 수 준별 지도)	· 명암의 5단계 숙지 · 반사광의 이해 · 직선을 통해 원기둥 의 명암단계를 표현 한다. · 친구들의 표현방법을 공유하며 잘된 점을 익힌다.	30 · 명암의 단 계가 부드 럽게 처 리 되 고 눈 높 이 에 따른 원기둥의 형태에 유 의
정 리 및 평 가	· 감상	· 우수작 감상 (과정 중 잘 된 작품 소 개 및 미비점 점검) · 차시 예고 (신문지 2장 앞뒤로 직 선 연습해오기)	· 잘된 작품을 감상하 며 좋은 점 익히기	

위와 같이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미술 수업 지도안을 본 결과 제 6

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수업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술수업의 미술 지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미술수업 실기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만들기, 판화 등과 같은 작품활동을 할 경우 차시를 교사의 재량으로 늘려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하게 한다.

2) 미술수업 시간표

① 인문계 고등학교 시간표

1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국어	도덕	사회	기가	물리	과학
2	역사	수학	체육	영재	국어	음악
3	영어	무용	과학	영어	역사	국어
4	물리	영어	영어	수학	국어	사회
5	수학	사회	창재	미술	기가	
6	미술	과학	수학	기가	음악	
7				CA		

2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역사	수학	컴퓨터	컴퓨터	화학	문학
2	윤리	일어2	생물	문학	일어	역사
3	수학	사문	영어	생물	보건	생물
4	문학	문학	보건	한문	무용	사문
5	영어	체육	수학	사문	문학	
6	한문	영어	영어	영어	윤리	
7	HR			CA		

3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영어2	일어1	사문	영어1	국어	국어
2	체육	사문	수학2	독서1	영어2	체육
3	수학1	근현1	지리	지리	독서1	지리
4	일어	국어	수학1	수학2	근현1	영어1
5	사문	근현2	영어3	사문	영어3	
6	독서	일어2	일어1	근현2	지리	
7	HR			CA		

② 실업계 고등학교 시간표

1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HR	컴그	체육	컴그	영어	체육
2	기가	컴그	미술	국사	컴일	국사
3	국어	도덕	기가	영어	과학	정보
4	사회	수학	기가	컴일	과학	CA
5	과학	문실	컴일	국어	사회	
6	수학	문실	컴일	사회	정보	
7	미재		비즈쿨			

2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자치	회계	국어	수학	미실	상경
2	상경	일어	윤사	영어	미실	생과
3	체육	음악	회계	사무	윤사	영어
4	그실	체육	수학	일어	상경	CA
5	사무	한문	영어	국어	화일	
6	영어		그실	그실	화일	
7	한문					

3학년						
	월	화	수	목	금	토
1	수학1	멀티2	문화	체육	사회	멀티1
2	통신	통신	전자1	영어2	문학1	수학2
3	법사	문화	통신	수학2	영어1	문학2
4	물리	일어	화학	문학2	통신	CA
5	영어1	생물	일어	전기2	영어2	
6	전기1	지리	수학1	수학1	지리	
7	학급	독서	문학1	특활		

인문계와 실업계의 경우 대부분 1, 2학년 때 미술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의 경우 대학 입시 제도와 맞물려 3학년 수업이 입시에 관련된 과목 위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업계의 경우는 디자인과 등에서만 2, 3학년에 미술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취업이나 진로에 관계되어 있는 과(전공)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별활동 시간에 미술반에서 미술수업을 받거나, 방과 후 특기 적성 시간에 텃생 등과 같은 수업을 받기도 한다.

미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목적은 현장의 학교 미술 수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 V. 결론

본 연구 조사 결과 인문계 학생들과 실업계의 학생들은 미술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술 수업만 본다면 크게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다. 미술 수업에서 텃생과 수채화와 같은 입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1, 2학년 때 미술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로 취업할 생각이 없는 경우 미술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또한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는 미술 수업의 다분함과 미술교육 환경의 여건 때문에 재미없어 하고 있다. 그것은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이 늘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 지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대학입시 과열화로 인하여 지식교육이나 교과학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인교육을 제대로 이루기 위하여 미술교육에 큰 관심을 갖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술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수업은 교과 중심에서 벗어나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

미술수업을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미술 전시회 관람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미술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정서적 안정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회화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판화, 공예, 사진, 조소, 디자인 등 다양한 미술 영역을 다루어 주어 미술 교육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둘째, 미술실 등 미술 수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술 수업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의 흥미를 느끼기란 매우 어렵다.

미술실·교구·학생용 미술 재료들이 열악하여 학생들이 미술수업 준비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있다.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미술 재료 구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 배정시 미술교과에 대한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술실 시설투자 및 관리미비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높여주어야 한다.(시설 투자를 통한 미술실기실의 공간 확보와 전문 교과전담교사나 보조교사의 단계적 배치 그리고 교내 조각공원·벽화·학교 숲 만들기 등 학교환경의 개선을 통한 미적 공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업재료 준비에 양질의 미술재료 확보를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세번째, 고등학교 미술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술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선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선생님들을 미술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켜 학생의 생활과 관련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첨가하여 미술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미술 실기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질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만으로도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미술수업이 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 전공의 미술교사를 각급 학교들은 보유하여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여러 분야의 소질을 개발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네번째, 탄력적인 미술 수업시간 운영을 해야한다.**

조사결과 미술 시간의 수는 적당하다고 하지만 이론 수업이 아닌 실기수업을 할 경우 학년에 따라 수업 시간 수는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시간이나 두시간을 가지고 실기 수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미완성된 실기물을 가지고 그 다음주로 미루거나 다른 조치를 처한다면 리듬이 깨질 수 있다. 그럴때를 위한 탄력적인 미술 수업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3년이라는 수업 연한 및 수업시간을 획기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학기제, 총량 시간제 등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운영 모형 적용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스스로가 미술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술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성 세대이지만 배우는 사람은 학생들이므로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을 받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미술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술 수업의 내용이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각급 학교의 미술 교사들이 충분히 수용하여 미술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부 등이 나서서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발전 시켜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강무섭 외, <교육마당21> (교육부, 1999. 10)
- 권혜숙, “중등미술교육에 있어서 인성 계발과 창의력 신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상호,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진로지도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성숙,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2003. 5)
- 김성숙 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서울 : 학지사, 2003)
- 김세준, “실업계 고등학교 디자인과 학생을 위한 웹 디자인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영미, “일반고등학교 미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영숙,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정, 『한국미술교육 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 김정희 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 학지사, 2003)

- 김정희 “교육에서 미술문화 교육의 의의와 실천에 관한 연구”  
(춘천 : 미술교육 연구 논총 , 2001)
- 김철훈, 『한국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 (서울 : 문음사, 2001)
-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 김현숙, “정보사회에서의 미술교육의 방향 전환 모색”  
(서울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문충식, “특수목적고등학생과 일반고등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충남 :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동수 , <현대 미술교육의 경향과 제반 문제>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1998)
- 박은영 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2001)
- 박휘락, 『한국 미술 교육사』 (서울 : 예경, 1998)
- 성완경, “한국 미술교육의 반성과 패러다임 전환”  
(춘천 : 미술교육 연구 논총, 2000)
- 손영화, “실업계 고등학교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 (서울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송상희, “상업계 여자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경선,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수업의 평가방법 사례연구”  
(부산 :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근준, 『미술학의 지평에 서서』 (서울 : 학고재, 1999)
- 원종임, “고등학교 미술과 수행평가 적요에 관한 연구”  
(서울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경환, <교육마당21> (교육부, 1999. 12)
- 이은적, “미술세계에서미술교육으로 그 교육학적 변환 방법에 관한 연구”  
(춘천 : 미술교육 연구 논총 , 2002)
- 이일중,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태구,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임종길, <중등 우리교육> (서울 : 우리교육, 2003. 3)
- 장선남, “한국 미술교육 학자들의 미술교육론 관점 비교연구”

- (서울 :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순희, “현행 미술대학 입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영섭,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2003. 1)
- 정영호, “실업계 고교생들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자율방안”  
(경남 :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조난심,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2001. 9)
- 조부경,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  
(서울 :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조성근, “미술대학 실기시험에 따른 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교육의 문제점”  
(대구 : 경북대학교, 1998)
- 조중현, <중등 우리교육> (서울 : 우리교육, 2003. 1)

## Abstract

**A study concerning about the present conditions of art education for the humanistic and vocational education.**

Myung-Hee An  
Specialized for art education  
Educational Undergraduate  
Seongsin Women's University.  
June, 2004.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dong Jo

This study was tried to research to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rt education subjected to the humanistic and vocational students. Especially, in this present conditions, it was strated to study countermeasures to a problem of the present art education researching satisfaction,interest and psychological,emotional area i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rt education.

It was as follows summer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1) All student both in the humanistic and the vocational answered an initiative spirits was the most good one through art class and the next was found for sense and emotion in order, and an answer for what is role of art education needed to youth, both side students were

responded to bring up an initial spirits with 68(39.1%)in the humanistic and with 77(45.6%) inthe vocational.

(2) In case of students who are very hard in art class, there were many answers that too many preperations to us and hates as well (64,62.7%): The response was big,it was meant that this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art education, and this is found that it was related to the given-conditions of the school.

(3) On a conditions of specializing of art should be fit with both: for instance, 60(33.7%) in the humanistic and 70(42.2%) in the vocational.

(4) The questions about shock painting in usual time and want to be draw was found with 75(42.1%), in case of the humanistic and in the vocational was 94(53.1%).

And when stressing, they expressed with self-problem and not wanted to draw was answered with 75(42.1%) in the humanistic and with 94(53.1%) in the vocational.

(5) Answers that is not helpful to resolve a stress of youth by art lesson was researched with 49(27.7%) in the humanistic and 42(23.5%) in the vocational.

However, about the questions on an opinion of art class was both liked with 63(35.4%) in the humanistic and 69(39.4%), however, the reason was that they liked to do and happy in the humanistic with (26, 40.6%). and in the vocational was free activity with(24, 35.8%).

(6) The biggest issue in the social problem is misconduct, leaving home and violence of youth, how much art gives a role to the development of refining of emotion and development of emotion: They would say "very

little" and it was much more with 48(27.0%) and the vocational was normal with 57(31.8%),it was answered much more.

(7) To the question about joining to Art Exhibit and Event was the most not to join with 50(28.4%) in the humanistic and 48(27.3%) in the vocational, and then to the question on with whom are you going to there they preferred with friend the most than parent and family members.

summing up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will come to very little difference in art education of both-side high school and found to be alike without no biggest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the humanistic education of satisfaction on art education and through the art education.

This results is seemed because both the all high school course would be done put together descretion of school 1st and 2nd grade.

And also, in art lesson, we must concern adding art appreciation lesson to make upgrade a national emotion and cultural leading and its level and try to develop as a cultured people.

<부록>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을 전공하고있는 안명희입니다.

본 설문 질문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알고, 미술교육에 관한 만족도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에 따른 인성 교육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학교나 개인 신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시작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보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협조하는 뜻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명희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학생은 현재 몇 학년인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학생의 현재 소속학교는?

- ① 인문계                  ② 실업계

4.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의 경제적 사정  
② 성적 때문에  
③ 졸업 후 취직을 하려고  
④ 부모나 주위의 권유로  
⑤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⑥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5. 현재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조금 불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8. 미술과목에 대해 “흥미가 있다” 생각하는 이유는?

- ①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 ② 미술수업이 재미가 있어서
- ③ 미술선생님이 좋아서
- ④ 기타( )

9. 미술과목에 대해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① 미술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 ② 미술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 ③ 미술선생님이 싫어서
- ④ 기타( )

10. 미술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한다면 11번, 싫어한다면 12번으로 이동)

- ① 좋아한다.    ② 싫어한다.    ③ 보통이다.

11. 미술시간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 ②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 ④ 쉽기 때문에
- ⑤ 선생님이 좋아서
- ⑥ 적성에 맞아 흥미가 있기 때문에
- ⑦ 기타( )

12. 미술시간이 싫다면 싫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재미없고 지겨워서    ② 자유롭지 못해서
- ③ 부담스러워서        ④ 어려워서
- ⑤ 선생님이 싫어서    ⑥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⑦ 기타(                )

13. 미술수업을 할 때 힘들거나 싫다고 느낀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준비물이 많고 귀찮아서        ② 돈이 부족해서
- ③ 실기 능력이 없어서            ④ 하기 싫어서
- ⑤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⑥ 작품 완성이 잘 안되어서
- ⑦ 기타(                        )

14. 현재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미술교육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정서를 순화시킨다.            ② 인격을 높여준다
- ③ 창의력을 키워준다.            ④ 타 교과학습에 도움을 준다.
- ⑤ 지능 개발에 유리하다.        ⑥ 상식을 높여준다.
- ⑦ 미적 표현능력을 높여준다.    ⑧ 기타(                        )

15. 미술을 앞으로 전공하려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적성에 맞아야 한다.            ② 돈이 있어야 한다.
- ③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④ 창의력이 뛰어나야 한다.
- ⑤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⑥ 기타(                                )

※심리·정서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평소 생활 중에 혼자 있을 때 그림(만화, 디자인, 꾸미기, 낙서 등)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가집니까?

- ① 자주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싶다.    ② 가끔 그리고 싶다.  
③ 그리고 싶은 적이 없다.                    ④ 기타(                    )

2.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를 그림(추상화, 구상화, 민화, 낙서 등)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까?

- ① 그리고 싶다.    ② 그리고 싶지 않다.    ③ 기타(                    )

3.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부분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는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미술 수업을 할 경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② 조금 풀린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더 쌓인다.                        ⑥ 기타(                    )

4.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책을 볼 때 부모님의 반응은?

- ① 못하도록 강하게 막으신다.    ② 조금 제지를 하신다.  
③ 관심이 없으시다.                    ④ 계속하도록 하신다.  
⑤ 칭찬을 하신다.                        ⑥ 기타(                    )

5.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책을 볼 때 부모님의 반응은?

- ① 못하도록 강하게 막으신다.      ② 조금 제지를 하신다.
- ③ 관심이 없으시다.                ④ 계속하도록 하신다.
- ⑤ 칭찬을 하신다.                    ⑥ 기타(                    )

6. 청소년들의 비행·가출·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은 정서 순화와 정서 발달에 얼마만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큰 역할을 한다.                    ② 조금 역할을 한다.
-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 ⑤ 전혀 관계가 없다.                ⑥ 기타(                    )

7. 가정에서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 ① 있다.                                ② 없다

8. 미술전람회 관람이나 행사에는 주로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 ① 혼자 가고 싶어서                ② 선생님의 권유로
- ③ 친구의 권유로                    ④ 부모님의 권유로
- ⑤ 기타

9. 미술 관련 행사의 참여나 전시회 관람은 누구와 주로 갑니까?

- ①부모님                    ②친구들                    ③혼자서
- ④때에 따라서                ⑤전혀 가지 않는다.      ⑥기타(                    )

10. 전시장이나 책에서 마음에 드는 미술작품을 보았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 ①진한 감동이 온다.
- ②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 진다.
- ③기쁘고 즐거워진다.
- ④별다른 느낌이 없다.
- ⑤오히려 불안해 진다.
- ⑥기타(      )